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 작업 본격화

오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10월 최종 결과서

지지부전했던 광주시 자치구(區)간 경계조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광주시는 23일 시청에서 시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계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지방의원, 공무원, 기관단체, 정당, 학계 등 모두 39명으로 준비기획단이 구성된 이후 3개월여만이다. 용역은 사단법인 한국조직학회와 경인행정학회가 맡았고, 올해 10월 최종 결과서를 낸다. 주요 용역 내용은 5개 자치구 발전실태 분석, 사례연구를 통한 광주에 적합한 경계조정 원칙 제시, 불합리한 행정구역 현황, 경계조정 방향 및 개선안 등

이다. 자치구 간 경계의 틀을 바꾸는 이른바 광폭의 경계조정은 사실상 처음이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 의견 수렴과 대상지 선정, 기초·광역의회를 거쳐 행안부에 건의하고 국무회의 통과 절차를 밟게 된다. 경계조정은 날로 심화하는 도심 공동화와 자치구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 편의제공 차원에서 추진됐다. 지역 정치권과 광주시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 속도가 붙었으나 기획단 구성을 하는 데만 2년 가까이 걸렸다. 이번 경계조정은 5개 자치구 모두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데다 선거구 조정

도 불가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치구도 경계조정의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방향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추진과정에서 언제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단순히 인구를 주고받거나 토지와 도로, 하천 등 지형만을 고려한 경계조정은 주민 간 갈등만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019년말까지 경계조정이 마무리되면 이듬해 국회의원 선거는 새판짜기에서 치르게 될 전망이다. 앞서 2011년 10월 1일 동구 산수 1·2동이 북구로, 북구 풍향동 일부 등이 동구로 편입하는 등 선거를 앞두고 소폭의 조정이 이뤄졌다.

지난 총선 전 국회의원 8석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동구와 남구, 북구 갑·을 지역을 인위적으로 재편해 적절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광주 자치구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동구가 9만5791명으로 10만 명 이하로 추락했으며 가장 많은 북구(44만1066명)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황봉주 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경계구역 조정은 인구, 경제력 등 자치구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을 제공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광주 공동체 미래발전의 토대를 새롭게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애물단지 ‘침’

전남도 99억 들어 제거

마시는 차와 한약재로 사용되는 등 쓰임새가 적지 않은 침이 애물단지가 됐다. 번식력이 강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가해 뿌리를 뻗어대는 바람에 주변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침에 대해 전남도가 대대적으로 제거작업에 나섰다. 전남도는 올해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유흥·도지, 해안가 등 7000ha에서 99억원을 들여 침 제거사업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106개 팀, 919명으로 전문 작업단을 조직하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침덩굴을 제거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5~6월, 9~10월을 중점 제거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경진대회, 침덩굴 분포 실태조사,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침덩굴 제거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관리과정을 작성해 발생·제거 지역 관리도 강화한다.

전남도는 최근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열어 효율적 제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침덩굴은 줄기와 종자 등을 통한 번식력이 강하고 생장력도 왕성해 생태계를 교란하고 경관도 해친다. 특히 1회 작업만으로는 제거가 어려워 최소 2~3회 반복 제거작업을 해야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 야산 어디에서 볼 수 있는 침은 어린 순은 식용으로, 뿌리는 말려 한약재인 갈근(葛根)으로 쓴다. 침꽃은 주독을 앓고 고열에 효과가 있으며 전분이 많이 함유한 뿌리는 흉년에 구황식품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봉진문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특성상 완전한 제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침과 전장을 한다는 마음으로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심각한 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원 자금의 불법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사무실,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자 22일 오전 서울 자택에서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 특활비’ 이상득도 수사... 이명박측 압박

성북동 자택·여의도 사무실 압수수색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83) 전 의원까지 수사 대상에 올리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실제로 군림하며 ‘만사형통’으로까지 불린 이 전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가족이나 수세에 몰린 이 전 대통령 측의 ‘도덕성’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차검사)는 이날 이 전 의원의 성북동 자택과 여의도 사무실을 동시

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정원 고위 관계자로부터 이 전 의원이 직접 역대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날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 의혹 수사는 지난 12일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 김진모 전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 압수수색을 계기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후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이 나란히 구속돼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속도전 양상으로 진행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을 국회의원 시절부터 보좌

한 ‘성공 집사’ 김 전 부속실장이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검찰 수사는 이전 대통령 측에 매우 불리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김 전 부속실장은 2011년 이 전 대통령 내외의 미국 빈 방문을 앞두고 국정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달러를 받아 김윤옥 여사 측 여성 행정관에게 건넸다는 진술까지 한 것으로 확인돼 김 여사 역시 검찰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이번 가운데 이 전 의원의 역대 국정원 자금 수수 의혹까지 새롭게 불거지면서 이전 대통령 측은 한층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딪혔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완도 보길도, 명품 어촌 테마마을 조성

국비 100억 지원, 예술섬 여행학교·문화갤러리

예송리~예작도 출렁다리·어부사시사 탐방로 확대

고산 윤선도 선생 흔적과 천혜의 풍광으로 이름난 완도 보길도가 명품 어촌 테마마을로 거듭난다. 22일 완도군에 따르면 보길도 권역은 지난날 해양수산부로부터 명품 어촌 테마마을을 사범지구로 선정돼 사업비 100억원을 지원받는다. 보길도가 지닌 자원과 가치를 특화한 정원예술섬으로 가꾸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조성하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보길 예술섬 여행학교와 섬 문화갤러리를 열고, 전망대 및 예송리~예작도 간 출렁다리를 조성한다. 어부사시사 탐방

로를 늘리고, 문화경관 복원과 섬 테마민박 증·개축 등을 추진한다. 보길도 권역은 지난해 4월에도 해수부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어촌분야 사업지구로 선정됐다. 2021년까지 예산 100억원을 따로 투입해 예송리 일원을 어촌 매력 특화마을로 개발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두 사업을 완료하면 주민생활 개선과 관광객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500만 관광객 시대를 조기에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출판부장 ejchung@kwangju.co.kr

조환익 전 한전 사장 명예 전남도민 된다

조환익(사진) 전 한국전력 사장이 명예 전남도민이 된다. 2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도는 조 전 사장을 명예도민으로 선정하기 위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은 오는 25일 전남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 전 사장은 2012년 12월 한전 19대 사장으로 취임해 2014년 12월 본사의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애너지 벨리 조성사업을 통해 새로



운 성장 동력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민준 전남도의회 의원은 “명예도민증 수여는 혁신도시 활성화에 대한 전남도의 관심을 표현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KBS 이사회,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 의결

KBS를 관리·감독하는 KBS 이사회는 22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어 고대영 KBS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KBS 이사회는 이날 재직 이사 11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이사회를 열어 고 사장의 소명을 들은 뒤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이인호 KBS 이사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8일 KBS 여론 측 이사진은 보도 공정성 훼손,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등 사유를 들어 고 사장 해임제청안을 KBS이사회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해임제청안은 전국언론노동조

합 KBS본부가 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4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지 141일째만에 처리됐다. 사장의 최종 해임은 KBS 사장 임명권이 있는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된다. 대통령 재가로 고 사장이 해임되면 KBS 이사회는 공모를 통해 사장 자필을 접수하고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 사장 후보자를 최종 선정한다. KBS 사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야당이 고 사장 해임에 반발해 KBS 신입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에 협조하지 않으면 새 사장 임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연합뉴스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돈 불분 대출

(주)온천경제대부 대표 최대성, 등록번호 2016-금감원 0622, 법정부자본 : 연 27.9%(월 2.3%) 이내,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조건 없음, 대출시 가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등록지소명칭 : 광주광역시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로 333, 2001호 상담문의.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공산면, 대지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합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매매 - 4200만원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팻섬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향후가치 100억
- 타 부동산 교환가
- 매매 - 14억

문의 H.010-3605-50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판선·전원주택지

- 장성 북이면 장성면 10974㎡(3320평) 5억9천
- 완도 악산면 득암리 바다집 2481㎡ 민박·직접합 분할가 2억4천
- 진흥 수문해수욕장 펜션 등 적합 2346㎡ 분할가능 평당 70만원
- 순창군 인계면 갑동리 대지 1302㎡ 사할도 적합 7300만원
- 장성 북이면 백암들개이트루브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주택·원룸·아파트

- 월산동 소방도로코너 2층 상가주택 땅 93㎡ 집 94㎡ 1억2300
- 북구 운암동 한국아파트 165㎡ 전방출입 13층 2억5천
- 월산동 소방도 대지 146㎡ 복층형주택 76㎡ 생활편리 1억6천5백
- 월산동 우체국부근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294㎡ 주택2동 2억3천

투자·매도·교환

- 무안 현령 평산리 바닷가 전 4542㎡ 8300만원
- 담양군 청평 의항리 9544㎡ 공장등 적합 평당 45만원
- 신안군 압해읍 도촌리 전원주택등 적합 3206㎡ 6600만원
- 함평읍 물마리해수욕장 5606㎡ 요양시설·숙박시설 다각구적합 5억

상가건물

- 백운동 빌라 대지 314㎡ 건물 527㎡ 매도 7억5천
- 고흥군 동일면 판선 땅 7061㎡ 판선 267㎡ 8억2천
- 양동 모텔·커피숍·노래방 대지 577㎡ 건평 1164㎡ 12억5천
- 송정동 원룸건물 대지 564㎡ 건평 596㎡ 보증금 5천에 월6000 13억2천
- 월산동 버스도로 대지 155㎡ 4층건물 263㎡ 임대 생활적합 3억7천
- 유동 삼성병원부근 대지 598㎡ 건평 334㎡ 식당등 다용도 9억2천
- 영암 월출산 밑 판선 땅 1578㎡ 경관출입 4억6천
- 월산동 농성초교 건너편 대지 132㎡ 미트와 주택(3층) 189㎡ 4억6천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급 매

- 중흥시장 부근 4층 상가주택 177㎡ 건물 482㎡ 2억7천
- 서동 제일파코아파트 7층 105㎡ 은행 5천 임대가능 1억
- 장성 백암사역부근 모텔 땅 364㎡ 객실17 달방임대출입 2억2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주택

- 치평동 5층 건물(보증금 1.7억 월980만) 매 25억원
- 금호동 7층 건물(보증금5.4억 월1,300만) 매 32억원
- 용봉동 4층 건물(보증금1억, 월745만) 매17.5억원
- 하남동 4층 건물(보증금 6.2억 월2,200만) 매 53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원(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산정동 2층 건물(보증금 2억 월1,100만) 매 27억원
- 월곡동 5층 건물(보증금 4억 월 540만) 매 25억
- 쌍암동 5층 건물(보증금 3억 월 1,580만) 매 43억
- 송정동 물류창고 대1,000㎡, 건 500㎡ 매24억
- 나주시 성북동 1층상가 대 489㎡ 건 322㎡ 매 7억2천

토 지

- 서구 서창동 대지 2중주거지역 1,760㎡ 매 13억6천
- 광산구 남산동 대지 1중주거지역 421㎡ 매1억5백만
- 임암동 효천1지구 근생용지 320㎡ 매 10억5천
- 화정동 대지 준주거지역 1,000㎡ 매 50억
- 산정동 생산녹지,창고용지 3,810㎡ 매 20억
- 광산구 소촌동 자연녹지 3,800㎡ 매 27억(공업사 물류창고 적합)
- 광산구 비아동 자연녹지 6,130㎡ 매 37억(공업사 물류창고 적합)
- 광산구 우산동 상업지역 코너자리 대지 612㎡ 매 12억
- 광산구 온남동 생산녹지 3,000㎡ 매 13억2천(물류창고 야적장 적합)
-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답 3426㎡ 4억2천만원(모텔화가 득)
- 도곡면 원화리 계획관리지역 내대지 5,355㎡ 매 33억(요양병원적합)
- 담양군 대전면 성산리 1중주거지역 전 1,637㎡ 4억6천(창고적합)
-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계획관리지역 전 5,000㎡ 매 8억5천
- 금천면 석전리 계획관리지역 대지,답 2,240㎡ 매 4억6천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